



한국형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중국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신성장산업연구실 연구원 정혜린

□ 맞춤형 웰니스케어: IT융합 의료기기 신산업

- 지난 3월 산업부와 미래부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중 하나로 ‘맞춤형 웰니스케어’를 선정
 - 정부가 정의한 맞춤형 웰니스케어의 개념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S/W, 콘텐츠, ICT 등의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유전체정보 등이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가진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서비스’
- 맞춤형 웰니스케어는 u-, m-, e-헬스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정책은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로 사회적 건강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
 - 사회적 민감분야인 원격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은 대상에서 일단 배제
- 웰니스케어 시스템은 웰니스기기와 웰니스서비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웰니스기기에는 대표적으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포함
 - 웰니스기기는 운동량, 체중, 식이정보 등 개인의 라이프로그(Lifelog)부터 혈당, 혈압, 심박수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기기

- 웰니스서비스는 웰니스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치료 후 사후관리 등 ICT기반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림 1 웰니스케어 시스템 구성



웰니스기기

웰니스서비스

자료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자료

□ 맞춤형 웰니스케어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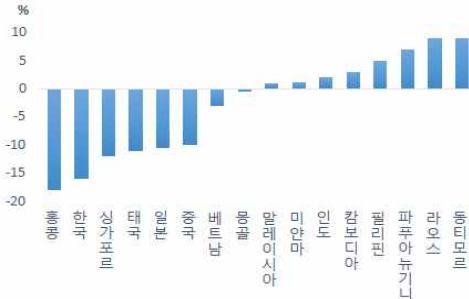
- 기술초기 맞춤형 웰니스케어에 대한 수요는 피트니스 및 건강관리에 집중되었으나, 생체신호측정 정확도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수요층이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로 확대되는 추세
 - 서비스 수요층이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로 확대되어 국가 보건의료비 및 간접비용 절감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인구고령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기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까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가능인구는 약 15% 이상, 중국은 약 10% 감소 전망²⁾
 - 중국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근로자가 만성질환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이 36억 일로, 이는 전체 근로일의 65%에 육박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2) World Bank(2015), "Adjusting to a Changing World"

에도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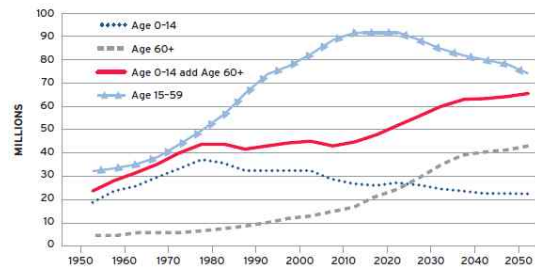
그림 2 세계적 인구고령화 추이

아태국가 노동가능인구 비중변화 전망
(2010 ~ 2040년)



자료 : World Bank(2015)

중국의 인구고령화 전망(1950 ~ 2050년)



자료 : Brookings 연구소(2014)

○ 맞춤형 웰니스케어 도입은 다양한 연구에서 정부의 예산절감 및 국민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

-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성과에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외래진료비, 입원율, 합병증 발생률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 각 요인을 최대 50% 감소시키면 5년간(2014~2018년) 2조원의 관련 의료비 절감 가능³⁾
-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원격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환자의 병증개선 효과를 입증

표 1 모바일헬스케어 효과 연구

질병	지역	연구주제	연구결과
당뇨병	미국	퇴원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환자마다 총비용의 42% 절감
고혈압	미국	원격기술로 전자 의료기록에 생체 신호를 전송	발병기간을 지연시키고 의사대면횟수를 71%로 줄임
심장마비	유럽	페이스메이커 인체 삽입 후 원격 모니터링	입원기간 35%, 외래진료시간 10% 감축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캐나다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입원율 50% 감축

자료 : 2015년 한국의료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참고

3) 최윤희·정혜린(2015), “모바일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스마트헬스케어산업”, E-KIET 산업경제정보, Vol. 609.

○ 따라서 선진국은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민 삶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국민의 고령화 및 건강 이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들을 추진중

- 미국은 헬스케어 전용주파수(2.36~2.4GHz)를 지정하여 선제적인 제도정비로 기술 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EU, 일본 등에서도 헬스케어 주파수가 지정⁴⁾

표 2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 정부 추진정책 및 사업

국가	정부 추진정책 및 사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확대 법안 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추진 · 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통해 필수 임상예방서비스 보험화, 개인 맞춤형 예방 플랜 서비스 제공 ·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10년 단위로 국가적 종합 정책 발표 · Medicare:노인의료보험제도에서 원격의료에 보험급여 제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Japan2015’ :인간중심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의료건강 등에 ICT활용 전략 수립 · 거택개호서비스:모바일 헬스케어를 활용한 고령자 대상 맞춤형 서비스 시행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Innovation with Services’ 주요 과제로 고령화 대응서비스 개발에 282억원 투입, 13개 과제 지원 · 영국:개인의 건강요약기록을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NHS CRS(Care Records Service) 정책 시행 · 영국: ‘Telecare Project’ 가정 내 무선망을 이용해 만성질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 현재 170만 명이 이용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5.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TSA홈페이지 참조 (<http://www.telecare.org.uk>)

□ 한국, 관계부처별 협의를 통해 상용화를 위한 발판 마련 계획 발표

○ 맞춤형 웰니스케어가 나오기 전에는 u-헬스케어, 스마트케어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

- 2010년 지식경제부가 SKT, LGT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술과 IT, BT를 접목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신시장 창출 전략을 마련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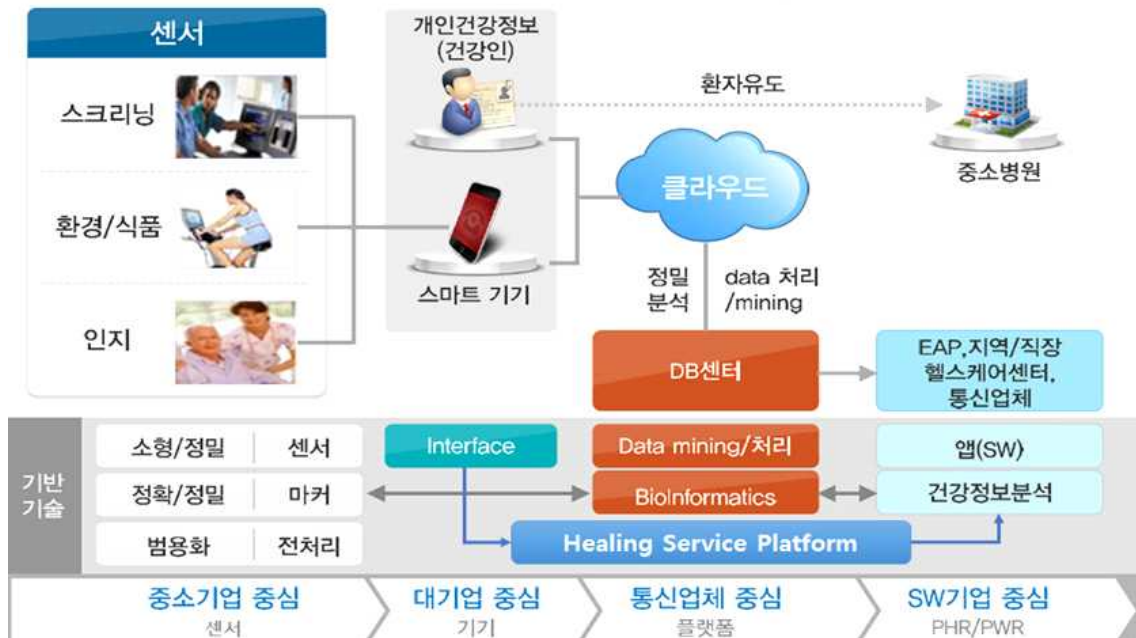
- 그러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제약 등 선제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의료기기의 센싱기

4) 이성주(2013), “의료 수요자와 유헬스”, TTA Journal, Vol.145.

술, 유효 데이터 분석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글로벌 경쟁력 구축에는 한계⁵⁾

- 지난 3월 발표한 산업부와 미래부의 맞춤형 웰니스케어 발전전략에 따르면, 맞춤형 웰니스케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강화하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준비할 계획
 - 이번 발전 전략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웰니스케어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그림 3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 생태계



자료 :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안) 발표자료

- 금년 5월 6일에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헬스케어를 비롯한 융합산업의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 안정성을 검증하고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목표로 제시⁶⁾

- 헬스케어 활성화협의체(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를 구성하여 범부

5)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2013),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

6)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2015) 브리핑 자료

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반 융합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

- 2015년 75억 원 규모예산을 투입하여 대구에 중증질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애프터-케어 서비스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 국내 맞춤형 웰니스케어 산업의 장애요인은 사회적 반발과 수요부족

- 정부주도적 기술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격진료를 포함하지 않은 국내 내수시장만으로는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만한 수요가 부족

- 신산업은 충분한 초기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는 수요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아직까지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수익 구조가 크게 미흡

- 추진중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범위 내에서는 단기간에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

- 범위가 원격진료로 확대되어 보험수가 적용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시장성장의 기회가 발생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기득권층의 반대와 정보보안 등 사회적 우려로 원격의료의 도입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내수시장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 우선 진출을 고려

- 해외시장 진출 상대국으로는 병원시설 및 의사가 부족하고 기득권층이 없어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강한 중국이 최적의 수출국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보건상품 수출의 주요 교역파트너이며, 의료기기분

야에서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2위

- 꾸준히 양국 간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성장률이 27.3%로, 2014년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

표 3 對중국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2010-14)
수출	139.6	179.5	315.8	357.4	366.6	27.3
수입	323.2	374.7	378.0	389.4	432.3	7.5
무역수지	-183.6	-195.2	-62.2	-32.0	-65.7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우리나라의 대중국 보건상품 교역현황 및 무역특화지수(TSI)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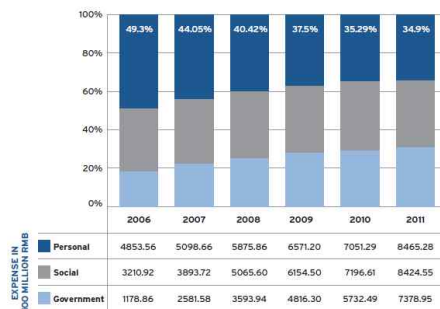
□ 중국 정부도 고령화 및 고소득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회비용 급증 문제를 겪고 있어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과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정

그림 4 중국의 만성질환 발생 및 의료비 지출 증가 추이

중국 만성질환 발생 비중 추이(%)

연도	심장병	소화기 질환	뇌혈관 질환	암	관절염	당뇨병
2008	17.6	24.5	9.7	2.0	10.2	10.7
2009	18.3	24.2	9.6	2.4	11	11.7
2010	18.5	24.3	9.5	2.0	10.5	11.9
2011	18.9	23.8	10.2	2.2	11.6	12.4

중국의 의료비 증가(2006 ~ 2011)



자료: Brookings 연구소(2014)

○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국인들의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 중국건강관리 시스템에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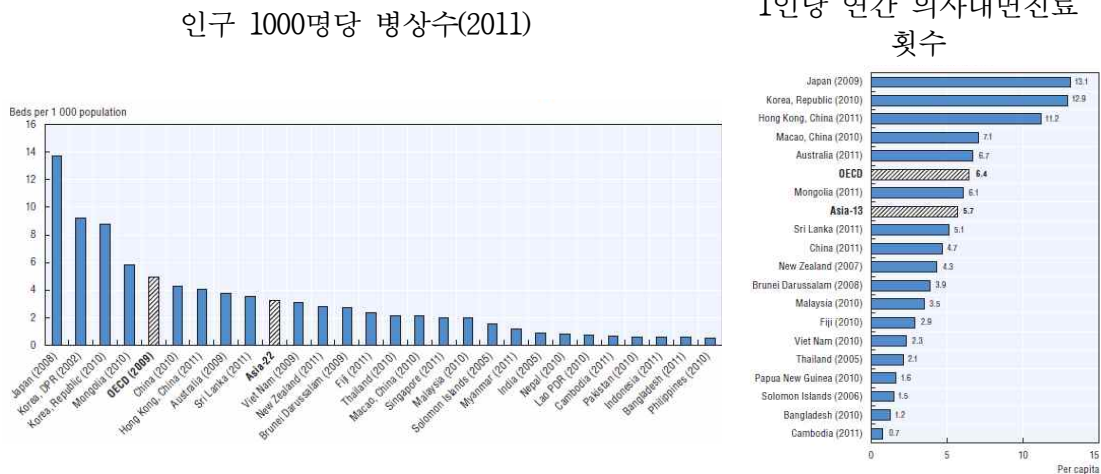
- 매년 2억 6천만 명이 만성질환 진단을 받으며 중국내 사망자 중 85%가 암, 뇌혈관장애,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만성질환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정부는 만성질환 예방 정책인 “Chinese Chronic Disease Prevention Work Plan(2012-2015)” 를 도입하여,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모니터링 기기 활용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 중

○ 그러나 여전히 2011년 중국의 의료비용은 GDP의 5.15%(2.4조 위안)이며, 중국의 경우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35~50%로 너무 큼.

□ 중국의 의료인프라는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크게 미흡

그림 5 중국의 의료인프라 현황



자료: OECD&WHO(2012),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 중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국가 평균에 비해 적고, 일본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1인당 의사대면진료 횟수는 연간 4.7회로 우리나라와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

- 중국에서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3급 병원수가 전국적으로 1,787개 소(2013년 기준)에 불과해 일반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이 매우 어려우며, 병원의 등급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매우 큼.

○ 따라서 중국정부는 기존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난 새롭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실정임.

- 중국은 의사들의 수도 적고 임금이 낮아 뇌물수수와 진료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그림 6 중국의 의료기관 유형



자료: 중국위생통계연감; 2015년 한국의료경영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에서 재인용

□ 중국 정부는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및 제도 개혁을 시행 중

- 중국 정부는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을 목표로 지속적인 의료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음.

- 국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 '기존 의료시스템을 전반을 개혁'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의료서비스인 '원격진료를 위한 제도를 신설 및 개정'

- 의료보험, 공립병원 개혁을 시행하고, 의료보건 시스템 정비, 민간 비영리 병원의 대외 개방 등을 통해 기존 국가 의료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

- 2013년 중국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분야를 해외 자본에 개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 중국기업의 참여가 인정된 분야는 해외 기업에 모두 개방하겠다는 방침으로 의료기관 설립에도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2013년 하반기에는 '요양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과 '건강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

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2014년 저장(浙江)성은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하였고, 개정 4개월 후에는 저장성의 Ningbo(寧波)시에서 시범적으로 ‘지혜의원’ 7)이라는 앱을 제작 및 보급하여 서비스를 운영
- 전국적으로는 12.5 계획 국가 정보화 로드맵에 따라 ‘지역 헬스케어 정보 네트워크’ 8)를 구축하여 의료기관별로 분산된 중국 국민의 진료기록을 일원화 관리9)하는 등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

그림 7 중국의 의료서비스 및 헬스케어 관련 추진 정책

2009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09-11년 의약보건 시스템 개혁 심화 실시 방안 - 기본 의료보장제도 및 약품제도 구축 - 일선 의료보건 시스템 완비 - 기본 공공 위생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공립 병원 개혁 시범시행 추진	12.5 계획 기간 의약위생체제 개혁 및 실시방안 - 민간자본의 국립병원 개혁 참여 허용 - 민간 비영립 병원 설립 독려 - 2015년까지 비국립 의료기관 서비스 공급량이 전체의 20%이상 되도록 함	건강 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법률 - 원격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2015년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와 의료체계 개혁안 - 정부의 의료보험 보조금 인상 적극 시행 - 의료보험 보조금 19% 인상, 중국내 의료종사자 임금인상 - 시골지역 의사 수 증원 방안
국립병원 시범개혁 의견 - 의료보험 규정, 연구개발, 재교육 등에서 비국립병원을 공공병원과 동등하게 처우	헬스케어산업 발전 촉진 의견 - 헬스케어 분야 최초의 국가차원 발전 계획 - 2020년까지 국민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도모	저장성: 원격의료 조항 신설 닝보시: ‘지혜의원’ 앱 제작 및 보급	
2010년	2013년	2014년	

자료 : 각종 매체 및 신문기사 내용 종합

□ 한국과 중국의 모바일헬스케어 관련 기술수준 비교

- 중국 대부분 기업이 생산하는 의료기기는 미들/로엔드 제품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화웨이, 샤오미 등 IT기기 제조기업들이 의료기기와 IT기술을 융합하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현상이며,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수준은 최첨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우수 IT기업과의 기술적 제휴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7) 상하이 인근의 항구도시인 Ningbo시는 동루안그룹과 협력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100여개 의원의 협조 하에 모바일을 통한 진료예약, 진찰결과, 건강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 중

8) 지역 헬스케어 정보 네트워크(Regional Healthcare Information Network, RHIN)는 중국 중앙 정부 및 각 성과 시 정부의 3단계 관리 체제하에 운영되는 통합전자 의료기록 및 전자 보건기록 시스템으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 정보 저장 및 공유 프레임워크를 구성

9)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세계 5개국의 ICT기반 헬스케어 정책 사례”, 동향보고서

표 4 주요국의 중점기술별 궁극기술 대비 기술수준

기술 분야	201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의료정보시스템/u-Health 기술	65.0	76.1	62.9	41.2	62.7
차세대 자동화 의료기기 기술	47.0	68.6	58.7	42.4	57.2
차세대 생체계측 및 체외 진단 기기 개발 기술	65.8	86.3	74.0	57.0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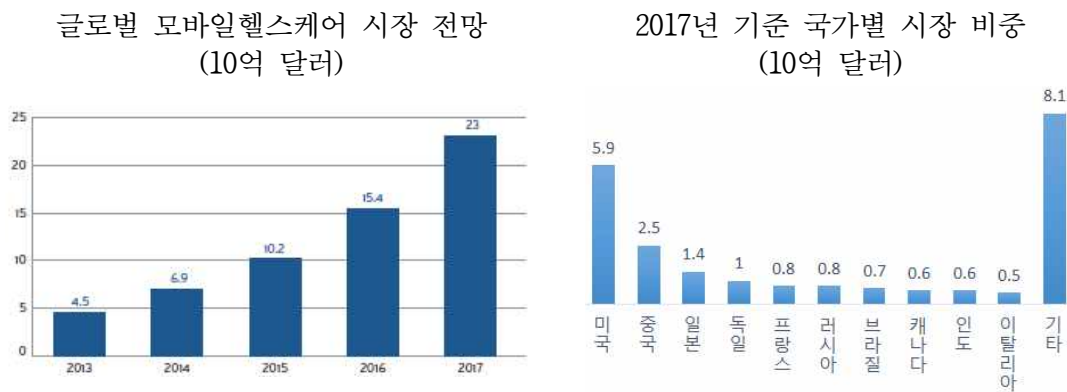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년 보건산업 기술수준조사('11년 11월) 기준

○ MRI, CT 등 국내 전문 의료기기분야 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IT기술이 융합된 u-헬스케어 분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기술 선도국

-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발달이 뒷받침 되면서 휴대용 진단기기 및 캡슐형 내시경 등 IT융합 제품을 출시 및 수출하고 있음.¹⁰⁾

□ 발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준비된 중국 모바일헬스케어 시장

그림 8 글로벌 모바일헬스케어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자료 : PwC(2013)

○ 전 세계 모바일헬스케어 시장은 2017년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미국은 59억 달러, 중국이 25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¹¹⁾

- 2017년 시장규모 중 분야별로는 만성질환관리 및 급성기 이후(Post acute care)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107억 달러로 가장 많을 것으로 전

10) 메디컬투데이(2015), “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비약적 성장... 휴대용 의료기기가 한몫”.

11) PwC(2013), “The global mHealth market opportunity and sustainable reimbursement models”, mHealthinsights.

망되며, 진단서비스에 대한 비중은 전체의 15%인 34억 달러를 차지

- 궁극적으로 원격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분야 시장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

○ 특히 중국시장은 정부주도형 정책 추진으로 원격진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인들의 모바일기기 구입 시장 규모와 소비자들의 이용 희망도가 매우 큼.

- 2014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2,000여개 이상으로 집계됨.¹²⁾
- 조사대상 중국 소비자들 중 88.6%가 모바일헬스케어 앱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85.7%가 전자의료기록 기능을 선호¹³⁾
- 중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건강 모니터링, 당뇨병, 고혈압 등에 가장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헬스케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

□ 중국의 의료기기 관련 중소기업과 IT융합을 통한 전략적 제휴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의 길

○ 중국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IT 플랫폼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한계는 IT융합기술이 발달한 한국기업과의 합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국내기업 또한 단독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지 유통망을 갖춘 중국기업과 합작하여 진출하는 것이 안정적 진출모델임.
- 서비스모델이 아닌 의료기기의 수출은 현지 기업의 카피가 빈번할 뿐 아니라, 수입 의료기기 허가에 필요한 CFDA 품질인증을 받기도 어려움.¹⁴⁾

12) CMPMA(2014), "China Medical Internet Development Report"

13) iiMedia(2013), "Review of China Mobile Health Market and Outlook for Future"

14) 중국 경내 생산 의료기기의 경우, 분류에 따라 시급 FDA, 성, 자치구, 직할시 FDA기관을 통과하면 등록가능

- 또한 사업 운영상에서도 세금문제와 현지 의사들과의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며, 전문 의료진단장비의 경우 현지 대리상을 통해 수입 및 납품되는 구조임.

표 5 주요 헬스케어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기업명	해외진출 사례
인포피아 ¹⁵⁾	미국 내 U-헬스케어 전문 유통업체 EHS사와 협력하여 블루투스 혈당측정기 신제품 공급 계약 체결 EHS사가 가진 중국 지방성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망
대산정보기술 ¹⁶⁾	중국 U-헬스케어 기업인 GL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블루투스기반 스마트폰 응급시계 등 납품
SKT	SKT는 중국 의료기기업체(티엔롱사) 지분인수와 중국 심천에 R&D센터 및 메디컬센터 를 개소하여 중국시장 진출
BBB ¹⁷⁾	심천의 헬셀러레이터에서 R&D센터 및 제조기반을 마련한 국내 스타트업기업으로 헬 셀러레이터 중개로 현지 파트너를 만나 협업할 계획
헬스커넥트	중국의 비스타 메디컬센터 ¹⁸⁾ 와 양해각서를 체결

□ 국내 의료기관의 요양양로 병원시스템 진출 시에 동반진출도 고려

- 2014년 11월 발표된 실버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양로 서비스 관련 영리 법인 설립 가능¹⁹⁾
 - 양로 서비스 시설을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각종 세금 및 행정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 고급화된 양로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선호하므로 브랜드화 된 양로시설에 배급할 경우 수요가 보장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기술력 홍보 및 중국지방정부의 인허가와 관련

15) 한국경제TV(2014), “인포피아, 미국/중국 U-헬스케어 시장 공략”.
 16) 전자신문(2014), “광주 30대 벤처 창업가 3인, 의료용 웨어러블 틈새시장 공략기”.
 17) Platum(2015),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성공한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겠다!”
 18) 중국 의료관련 3대 프리미엄 브랜드로 비스타 메디컬센터는 중국 내 많은 네트워크 구성
 19)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양로서비스 기관 설립 뿐 아니라 양로기관의 규모화, 브랜드화를 적극 장려

시 협조 필요

-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는 검증된 중국 현지 파트너기업 풀을 구성하여 한국기업의 요청 시 최적의 파트너 기업 중개 지원
 - 한국 헬스케어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 및 인지도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사회적 공헌활동 등 이미지 제고 노력을 간접적으로 수행
- 인허가가 까다로운 의료분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
 - 중국 의료기기는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시/성급 FDA 허가를 받으므로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신속한 인허가 조율 지원
- 현지 파트너 뿐 아니라 진출 목적이 부합하는 국내 기업간의 해외진출 공동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국내 기업간 기술교류의 장도 마련